

‘빚폭탄’ 산업대출 69조 폭증 사상 최대

‘코로나 충격’ 자영업자·기업 빚내서 버틴다

자영업 물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18.8조 ↑

올해 2분기 금융권 산업대출이 석 달째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정부, 가계는 물론 기업 자영업자까지 모두 ‘빚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대폭 늘어나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

업별대출금은 1328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모두 빚을 늘리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대출이 역대급 폭증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4.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증가세를 주도한 건 서비스업 대출이다. 전분기대비 47조2000억원 늘어 역대 가장 큰 폭 늘었다. 이는 2분기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의 68%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주로 물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18조8000억원 늘어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 대출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대출도 10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산업별대출금 증가 배경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도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대출도 전분기대비 17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자동차트레일러, 급속가공제품기계 장비 등 일부 업종의 시설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건설업 대출도 건설 수주, 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2조5000억원 늘어 전분기(1조4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만큼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운전자금 대출액은 2분기 기준 788조6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인 52조1000억원 늘었다. 시설자금 대출은 17조원 늘었다. 2014년 4분기(17조1000억원)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45조원 증가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에 급취금기관에서 24조1000억원 늘어 모두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뉴시스

‘채소값 급등’ 소비자물가 0.3% ↑

농산물 4.9% ↑...채소류 16.3% 축산물 9.5% 석유류 10.2% ↓...도시가스비도 10.4% 하락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보였다. 마이너스(-) 물가는 벗어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100)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3% 상승했다. 6월(0.0%) 보합에 이어 0%대의 낮은 상승률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6월(0.0%)에 이어 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면서 “지난 6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마이너스지만, 공식적으로는 첫째 자리만 보기 때문에 6월에도 플러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03%를 보이며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어 지난해 9월(-0.4%) ‘공식물가’도 마이너스 기록을 남겼다. 올해 1월(1.5%)부터는 3개월 연속 1%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0.1%) 0%대로 내려갔다. 5월(-0.3%)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월(0.0%) 보합을 기록했다. 안 심의관은 “고교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무상화 등 교육 분야 정책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하락했다”면서 “국제유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석유류와 연동되는 도시가스가 인화된 영향도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로 의식 물가 상승 폭도 둔화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물은 1년 전보다 6.4% 상승했다. 채소류 가격이 16.3%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도 4.9%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배추(35.7%), 고구마(37.0%), 양파(39.9%), 상추(35.9%) 등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7월 작황 호조로 채소류 가격이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돼지고기(14.3%), 국산쇠고기(9.8%) 등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9.5%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에 0.22%포인트(p) 기여한 셈이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0.4% 하락했다. 햄 및 베이컨(5.2%) 등 가공식품은 1.6% 올랐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경우(-13.8%), 휘발유(-8.6%), 등유(-14.6%) 등 석유류가 10.2%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0.44%p 끌어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신입 공채 2021년도...12월까지 접수



2021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 모집

Global Premier Engineering Partner

공유인 채용 담당자

www.hengr.com

·서류접수: 9.1(화) - 9.12(토) 오후 3시까지
·평가일: 10.14(수) 온라인 실시 예정
·1차 면접: 10월 말 - 11월 초
·2차 면접: 11월 말
·신입공채 및 채용설명회: 12월 중
·입사일: 2021.1.4(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1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건축, 인프라, 자산관리, 안전, 재정, 경영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지원요건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예정)자로서 요구 어학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1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각 전형에서는 직무 적합성과 인재상 부합도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전체 전형에 걸쳐 블라인드 전형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를 적용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 전형을 최대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현대엔지니어링 채용 홈페이지(https://hec.recruiter.co.kr) 및 현대엔지니어링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채용설명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공개 행사 현장. 더 프리미어는 가정 환경에서도 소비자에게 영화관 같은 스크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 TV로,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적용해 차원이 다른 영상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올 최대 규모 ‘2천억대’ SW공공발주...나주혁신도시 들쭉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발주 15일 개찰...삼성SDS·LG CNS·SK주 C&C 등 수주 경쟁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올해 공공분 소프트웨어(SW) 사업 중에선 최대 규모로 꼽히는 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해 관련 SW기술진들이 나주 현지에 대거 상주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수주를 위해 국내 최고의 IT 전문기업인 삼성SDS, LG CNS, SK C&C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규정에 따라 각축을 벌이고 있다. 2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이

번 사업은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입찰 추정 가격만 2063억 900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3일 광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고 오는 11일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15일 오전 11시에 개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주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주

업체의 SW기술진이 나주혁신도시 현지에 상주하고 일정규모의 사무공간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나주혁신도시에는 3년 간 수주사 SW기술진 3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200여 명 등 최대 500여 명이 상주하며 지속할 전망이다. 나주혁신도시 1호 이전 공공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국 우체국의 우편·금융 정보화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 전산장비 설치, 우정사업 IT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센터는 이번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나주=조성준 기자

aT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외부 변호인 통해 제보 접수·통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aT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2일 aT에 따르면 ‘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운영된다.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한 후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결과까지 통보해 준다.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감질피해, 금품·향음·편의 제공 등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안심변호

사에게 상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aT 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신고내용 조사는 aT 감사실이 맡아 진행하지만 조사 결과 통보는 외부변호사가 대신 해줌으로써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aT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공사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남·여 변호사 2인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공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나주=조성준 기자

‘패닉 바이닝’ 달랠 3만 가구 사전청약 내주 공개

정부 30대 ‘패닉 바이닝’ 달래기 위한 조치 “내 집 생긴다 기대만으로 불안 진정”

정부가 내년에 사전청약 하기로 한 3만 가구 물량을 대한 대상 지역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사전분양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사전청약 하기로 한 물량 3만 가구에 대한 일정과 대상지역을 확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8·4 대책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 1만 가구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전청약 일정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며 ‘패닉 바이닝’(공황 구매)을 불러일으켰던 3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떨고 매매수요가 완화된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신도시에 공급될 물량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

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이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에 그쳤고 특히 강남 4구는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는 설명이다. 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8월 첫째 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더 뉴 코나’...내외장 공개

미래지향적 디자인·스포티한 주행 감성 강화 N라인 추가



현대자동차의 대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코나가 더욱 와이드하고 날렵해진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6월 코나 출시 이후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코나’의 내·외장 디자인을 2일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더 뉴 코나 1.6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N라인 세 가지 라인업을 10월 중 동시 출시 예정이며, 추후 2.0 가솔린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한층 세련된 감성을 입힌 DRU(주간주행등), 예리하게 마무리된 후드, 진취적인 스키드 플레이트(차체 하부 보호판), 정교하게 다듬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강렬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낸다. 프론트 범퍼의 양 모퉁이에 자리한 수직 구조의 공기 유입구는 공기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

라 더 뉴 코나의 자신만만한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측면부에 위치한 클레딩은 코나만의 차별화된 캐릭터를 나타낸다. 이는 차의 앞뒤를 보호하듯 감싸는 ‘아머’를 표현한 것으로 기존 코나부터 이어져온 독창적 요소 중 하나다. 새롭게 추가된 ‘N 라인’은 기본 모델에 ▲스포티한 디자인의 N라인 전용 범퍼 디자인 ▲바디 컬러가 적용된 클레딩 및 도어가니쉬 ▲메쉬 디자인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스타일리쉬한 N라인 전용 다이나믹트릿 휠 ▲싱글 트윈팁 머플러 적용으로 역동적인 이미지에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코나에는 안전하차경고, 후석승객알림, 차로유지보조, 전방차량충돌방지 보조가 기본 적용됐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기능도 추가했다. /뉴시스